치 사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입니다. 힘들게 살더라도 가족이 있어서 힘을 냈고, 행복을 나누며 서로에게 웃음을 선물했던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마음으로만 그리며 아파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많은 이들 또한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 바다만 바라보던 마음은 이제 망망대해처럼 한없이 넓고 깊어만 가고 말았습니다. 그 가장 깊은 곳, 내 안의 아득한 곳에 이르러 생명의 존재이기에 갖는 소중한 희망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여느때처럼 행복의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많은 신행의 사연에서 이와 같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희망의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마다 고통을 이겨내고 삶의 희망을 갈구했던 많은 사람들의 신심에 감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의 삶에서 실천한 감동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마침 시행한 신행수기공모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수행이나 깨달음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강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마침내 대자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길의 으뜸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며, 모든 착한 법을 기르고 일체의 의혹을 없애 위없음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연관하여 우리 종단은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붓다로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뜻 깊은 실천도 바로 지극한 신심에서 시작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종단이 주최하고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주관해 처음 시행한 제1회 신행수기공모는 기도와 신심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근간임을 공표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보살님의 지혜와 가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들은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신행문화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400편이 넘는 수기가 접수되고,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실한 사연들이 담겨있다는 점은 신행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의 감동을 통해 일상에서 기도하고 정진하는 불자가 늘어간다면, 한국불교에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신행수기 공모가 원만하게 회향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심사위원과 불교방송, 법보신문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불자님들에게 깊은 격려를 보내며, 이 자리가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는 진지한 성찰의 시간이 되고, 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가 향기롭게 전달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5월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